

기업금융과장	경영지원국장

\* 기안자 : 손후근 사무관

# 정책금융 규모 추정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

## 1. 연구용역 개요

- (연구목적)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맞는 정책금융의 적정규모를 연구하여 향후 공급규모 결정에 활용
- (연구방법) 중기청 및 유관 금융지원기관\*간 공동연구 추진(5개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연구기관) 중소기업 연구원(홍순영) 및 이종욱 교수
- (연구기간) 180일('10.8.5 ~ '11.2.1)
- (소요예산) 총 114.3백만원(중기청 8.8, 기타기관 26.4)

## 2. 연구용역 결과

- ① (규모추정 방식) 통화공급 결정이론을 응용하여 과거 실적을 실증분석, 미래 규모를 예측
  - '76년 이후의 정책금융 규모와 이자율, 대출잔액, 어음부도율 등 여러 변수들을 대입하여 회귀분석 추정식을 도출
  - 정책금융 공급  $S = F(Y, I, Y^*, \text{기타요인})$  일차방정식  
\*  $Y(\text{GDP}), I(\text{이자율}), Y^*(\text{잠재적 GDP})$
- ② (추정식 선별) 여러추정식 중 변수가 유의미하고, 추정식이 안정적(stationary)인 식 중 경제운용에서 중시하는 GDP, GDP GAP(잠재GDP-실제GDP) 변수 위주의 식을 선별

$$\textcircled{3} \text{ (추정식) 정책금융} = a*\text{상수} + b*\text{DUM98} + c*\text{DUM09} + d*\text{GDP} + e*\text{DGDP} + f*\text{DGDP}(-1) + g*\text{GDPGAP} + h*\text{GDPGAP}(-1)$$

\* a, b, c, d, e, f, g, h는 각각 각 변수의 계수임

\* DUM98과 DUM09는 외환위기시와 금융위기시만 고려되는 변수임

<정책금융 규모결정 추정식>

정책금융규모	3개 기관(지역신보 제외)		4개 기관	
	(1)	(2)	(3)	(4)
상수	-933,752	-992,988	-295,097	-225,220
DUM98	16,385,144	16,765,669	16,053,544	16,784,145
DUM09	6,697,302	6,802,164	13,046,796	13,183,366
GDP	0.062937	0.062912	0.073941	0.074155
DGDP	-0.177507	-0.196345	-0.297139	-0.338379
DGDP(-1)		0.020393		0.036372
GDPGAP	0.169628	0.188298	0.284320	0.325071
GDPGAP(-1)	-0.347256	-0.379548	-0.479106	-0.544996

④ 추정의 결과('11년 규모추정)

- 지역신보를 제외한 3개 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의 규모는 3.8% 성장일 때 63조원, 4% 성장일 때 62.5조원, 4.5% 성장일 때 66조원, 5% 성장일 때 62.7조원으로 예측
- 성장률과 정책자금 규모는 4.5%를 중심으로 역 U자 형태의 예측치를 시현
- 4개 기관의 정책금융 규모는 3.8% 성장일 때 70.5조원, 4% 성장일 때 69.5조원~69.8조원, 4.5% 성장일 때 67.8조원~74.4조원, 5% 성장일 때 69.6조~69.9조원으로 예측

<3개기관 및 4개기관의 시나리오별 예측결과>

성장률	3.8%		4.0%		4.5%		5.0%		2011년 지원계획
	(1)	(2)	(1)	(2)	(1)	(2)	(1)	(2)	
추정식 예측치 (3개 기관)	63,066,262	63,001,467	62,432,439	62,596,486	66,032,161	66,083,702	62,707,624	62,707,623	57,407,500
추정식 예측치 (4개 기관)	(3)	(4)	(3)	(4)	(3)	(4)	(3)	(4)	
	70,564,673	70,542,592	69,512,917	69,871,312	74,498,336	67,830,371	69,622,346	69,894,418	71,157,500

### 3. 결과활용 방안

- ◇ 동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12년도 정책금융의 적정공급 규모를 산정
  - 이를 통해 시장실패 보완과 고용창출 및 지속성장을 위한 적정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속 공급
  - 아울러, 적정 정책규모 유지를 위한 합리적 예산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
- 정책금융 규모에 대한 예측치 값이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예측치들을 정책금융 지원규모의 상한과 하한으로 설정하여 활용
- 향후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 등과 유사한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대응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발생시에는 3개기관 23조원(외환위기 16조원, 금융위기 6조원)의 추가 정책금융 투입, 4개기관에서는 30조원(외환위기 17조원, 금융위기 13조원)의 추가 금융 공급